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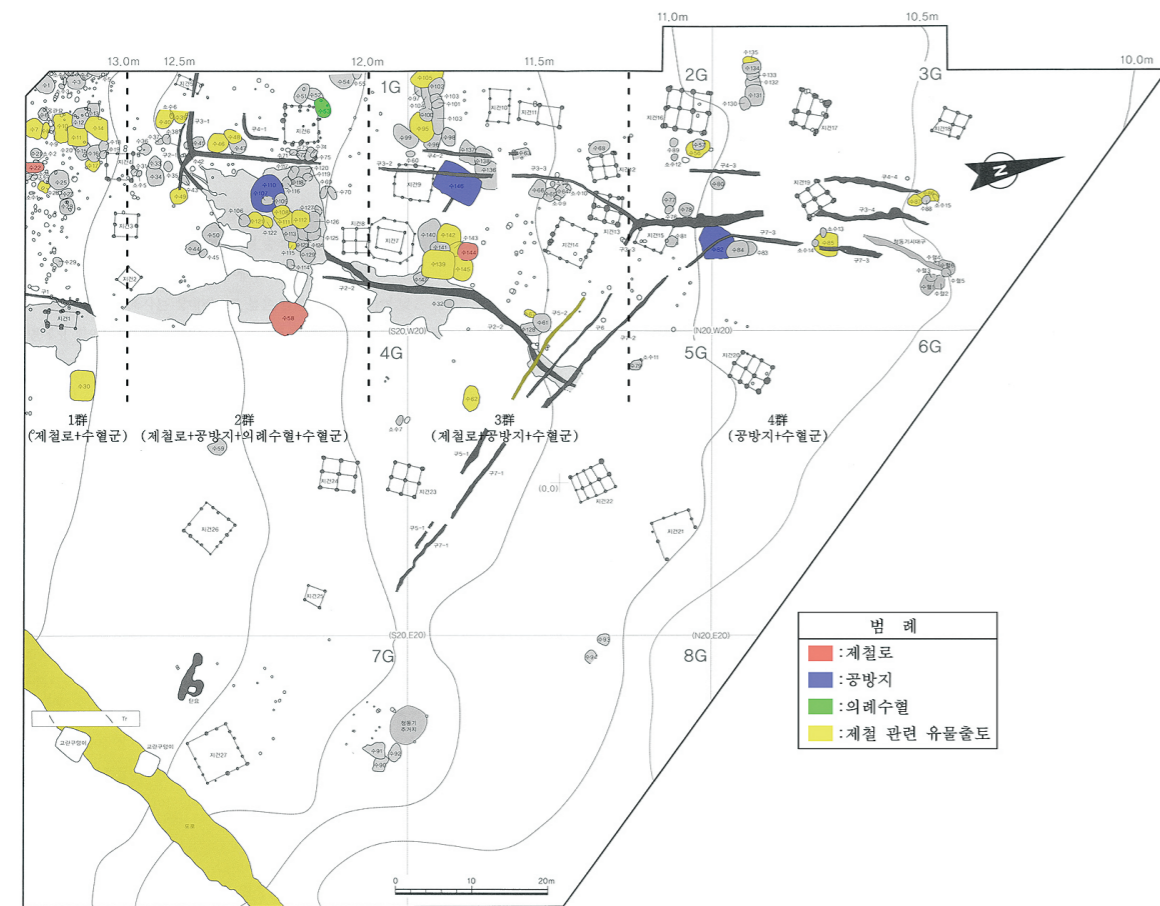
김해 여래리 유적

金海 餘來里 遺蹟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506번지 일대
시기 삼국시대(기원후 4세기 후반~기원후 6세기)
조사기간 2007년 2월 5일 ~ 2007년 11월 21일(발굴조사)

경남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506번지 일원으로 선사지성 층적대지와 구릉사면부에 입지한다.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수혈·구, 삼국시대 고상건물지·수혈·구·주혈·탄요·도로·하도·옹관묘, 조선시대 논·무덤 등이 조사되었다(우리문화재연구원 2009).

제철과 직접 관련된 유구는 4기(22호, 58호, 144호, 146호 수혈)로서, 이 중 58호 수혈을 제외한 나머지 수혈은 내부시설이 설치된 경우로서, 제철생산 유물인 철광석과 철재, 단조박편, 철기 등이 함께 출토되었다. 이 유적은 다량의 철광석과 철재, 의도적으로 파괴된 것으로 보이는 노 벽체편과 다수의 소구경송풍관 등으로 보아 1·2차 공정이 이루어진 제철취락이다. 조사구역 내 수혈군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확산되는 특징을 보이는데, 적어도 4개의 군으로 구분가능하다(도면2).



도면 2 김해 여래리 제철취락의 구조

먼저 1군은 제철로+수혈군, 2군은 제철로+공방지+의례수혈+수혈군, 3군은 제철로+공방지+수혈군, 4군은 공방지+수혈군으로 구분된다. 그 중에서도 중북수혈군의 경우 바닥면의 요철이 심하고 특정지점에 집중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제철로의 보수나 하부구조 구축에 필요한 점토를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도 있다. 또한 대부분 수혈이 1차적 기능이 상실한 이후 폐기장으로 재사용되는 경우도 많고, 제철관련 유물도 내부토에서 출토되었다.

수혈과 함께 주목되는 것이 지상건물지다. 이 지상 건물지는 팔각형의 특수건물지와 가장자리를 따라 목주가 확인되는 주거공간으로서의 지상건물, 정면2칸·측면2칸의 창고건물 등으로 구분된다. 제철공방지에서 생산된 철소재나 철기를 보관하는 곳으로 추정되며, 철소재를 운반하기 위한 구축된 도로유구가 확인되는 점도 주목된다. 실제로 도로 노면에서 철광석을 비롯해 철재 등이 수습되었다. 이 도로가 연료와 원료의 운송과 철소재를 유통하는 수단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여래리유적은 제철공방지를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 製鐵聚落으로 판단된다.

그 외 33기 수혈에서 제철관련 유물인 철광석, 철재, 철괴, 송풍관, 노벽체편 등이 출토되었다(도면2의 노랑). 조사구역에서 확인된 수혈군 내에서 제철 관련 유물이 출토된 수혈이 고루 분포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수혈의 성격이 철생산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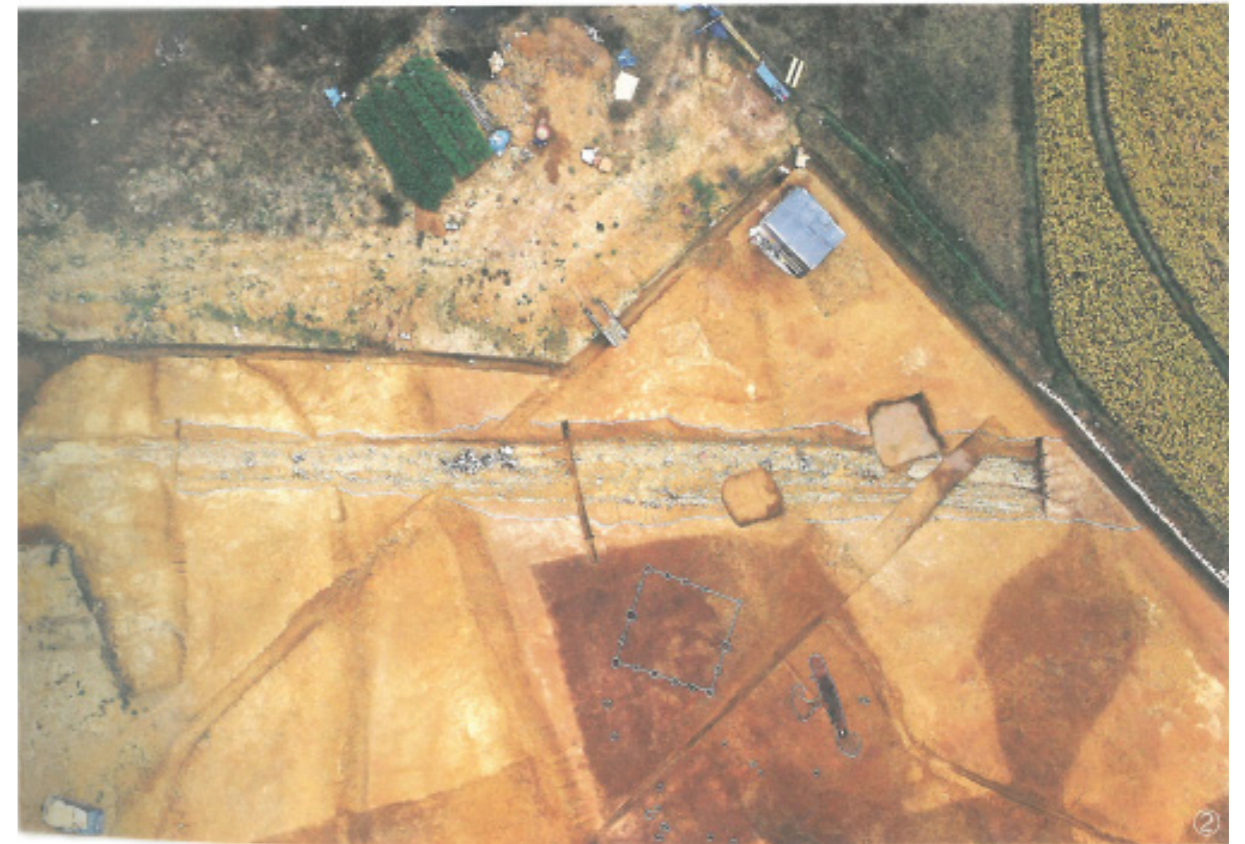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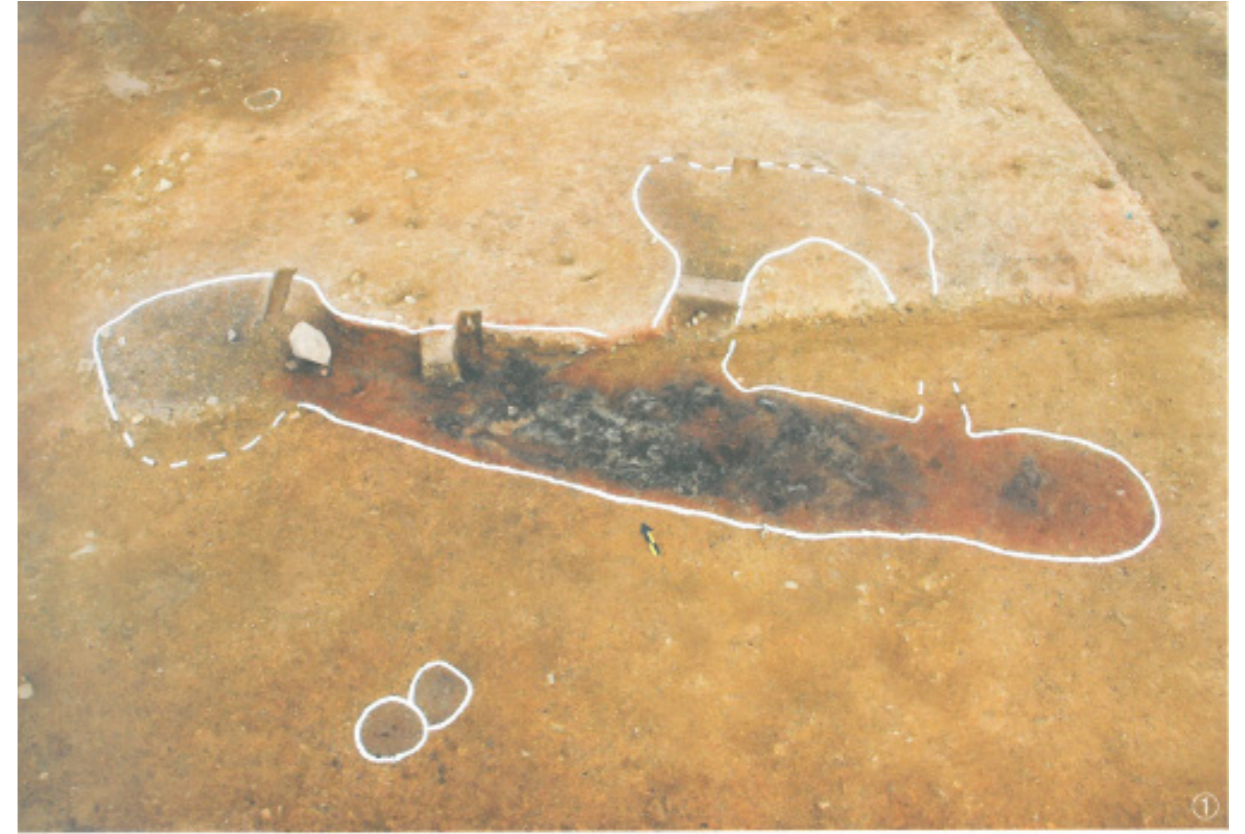
유구에서 출토된 유물로 보아 유적의 중심연대는 5세기 중반에서 6세기에 걸쳐 운영된 취락이다. 그런데 탄요와 수혈 내 목탄 자료에 대한 고고지자기학적 분석과 방사성탄소연대측정 결과, 4세기대 유구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조사지역이 여래리유적의 전체 취락 중 일부일 가능성이 크다.

참고문헌

- 우리문화財研究院, 2009, 『金海 餘來里 遺蹟』
- 소배경, 2018, 『경상권 제철유적의 발굴성과』, 『최신 동북아시아 제철유적 발굴성과와 그 의의』,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 국제학술세미나



원색사진 1. 조사지역 위성사진(● 표시부분)



원색사진 7. 탄요(①) 및 도로(②) 전경

